

# 북해도에서 온 러브레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3장 11절)

김주환 · 흥성아 선교사 가정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평안하신지요? 이곳 북해도는 며칠 사이에 다시 일본 전국에서 코로나 감염자 발생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경제 살리기 정책으로 [go to 캠페인] 을 펼치며 여행을 장려했는데, 북해도에 많은 여행객들이 다녀가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일본은 크리스천 인구가 적어서인지, 교회예배에 대한 정부의 특별한 규제 등은 없습니다. 6월에 예배가 다시 재개된 이후, 마스크와 손소독, 체온측정, 환기 등을 실시하면서 온라인 예배와 함께, 대면식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쓴 얼굴이지만, 매주 예배로 모이는 성도들의 얼굴에는 사랑과 기쁨이 넘침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라도 함께 모일 수 있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한편, 세계 각지의 더 큰 고통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년회 단풍놀이

아름다운 홋카이도의 단풍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1월 4일 첫눈이 내렸습니다. 이번 겨울도 주님의 공활하심으로 어떤 상황가운데도 감사가 넘치는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후원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육간의 강건하심을 기도드립니다.

## 9월 10일 교회 십자가 조명 공사



조명 공사 후 밝아진 십자가

지난 겨울에 강한 바람 때문에 교회 십자가를 비추고 있던 조명 2개 중 하나가 휘어지면서 불이 들어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화재보험이 적용이 되어, 십자가 조명 공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은, 오랫동안 이렇게 고장이 나기 전부터 십자가 조명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원래 조명이 앞 부분 밖에 없어서, 밤에 뒤쪽에서 십자가를 보면 조금 음산하고 어둡게 보여서 늘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참아왔습니다. ‘하나님, 조명 좀 바꿔주세요’하며 오며가며 볼때마다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조명교체공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 교회 성도분이 다니시는 회사에서 공사를 맡아주셨는데, 그 회사 사장님이 저렴한

가격으로 십자가의 앞, 뒤, 그리고 게시판과 사무실의 조명까지 LED로 교체해서 달아 주셨습니다. 그 사장님은 크리스천은 아닌데,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다닌 적이 있으셔서, 교회에 오면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늘

생긴다고 하십니다. 밝아진 십자가를 보고 교회를 찾아오는 분이 있기를, 그리고 공사를 맡아주셨던 사장님도 구원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 9월 17일 토카치 메구미 교회 「zoom으로 카라반(캐러밴)」

북해도의 토카치 지역에 일본동맹기독교단 북해도 선교구(노회)에서 함께 개척한 교회가 토카치 메구미 교회입니다. 매년 캐러밴 전도라고 해서, 한국의 아웃리치와 같이 교단 전체에 지원자를 모집하여, 교회에 며칠 간 머물며 봉사선교 활동을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중지가 되었습니다. 대신, 교단 차원에서 zoom으로 개척교회를 응원하고 중보하는 시간을 계획하였습니다. 4일 동안 이루어졌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17일에 참석하여 함께 기도제목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평소보다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선교에 참여하고 중보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10월 10일 결혼식

이번 선교편지에 가장 알리고 싶은 소식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10월 10일에 타카하시 형제와 나베야마 자매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타카하시 료 형제는 대학생 때 CCC 단기 선교를 통해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졸업을 하고 취업을 했는데, 직장이 교회에서 좀 멀어서 이제는 교회에 오기 힘들겠지 했는데, 교회예배에 너무나 오고 싶은 나머지, 자전거로 세 시간이나 달려와서 예배에 출석했던 청년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 인구 0.4%인 일본에서 기독교 청년으로서 살아가며 느끼는 수많은 갈등에 부딪쳐, 교회에 오지 못했던 시간도 있었고, 장남이라서 세례를 받기까지의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이 형제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크리스천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게 되고, 또 크리스천 자매를 기도하며 찾고 찾아 저희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혼집도 교회근처에 마련하였습니다. 일본에서 크리스천 가정이 탄생하는 것은, 복중에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가정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으로 잘 세워져가고, 많은 젊은이들과 교회에 귀한 모범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타카하시 형제, 나베야마 자매 결혼식

### 11월 1일 북해도 선교회 zoom으로 성회

북해도 선교구에서는 매년 노보리베츠라는 온천 지역에 호텔을 빌려 성회를 가집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성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참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즈쿠사 목사님이 말씀 봉사를 해 주셨는데, 종교개혁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 유베츠메구미교회 건축진행상황

유베츠메구미교회가 11월 22일로 5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직 예배당은 없지만, 6명의 청년들로 시작된 예배 모임이 5년간 거의 매주, 지역센터에서 드려진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5년 사이에 두 명의 청년은 삿포로 지역으로 돌아와 이제는 4명의 형제자매들밖에 없지만, 유베츠 인근 지역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마음으로 교회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하나님께서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로 100여년간 교회가 사라졌던 지역에 교회를 세wig하도록 저희 교회를 격려해주셨습니다. 물론 기도제목도 있습니다. 건축회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건축위원회 안에서 의견의 일치가 되지 않아, 계속되는 의견 조율로 일년 이상의 시간을 회의에 회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목회자가 없고, 예배당도 없는 곳에

서 DVD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년들이 영적으로 지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탄의 공격이 너무도 심한 것을 느낍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머리되신 주님이 세우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기도로 동참해 주세요.



북해도 쿠로다케 정상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 속히 종식되어 여러분을 직접 찾아 뵙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 격려받는 시간이 허락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귀한 기도와 후원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11월 5일  
일본 북해도 에베츠시에서  
김주환-홍성아 드림

### 기도해주세요.

1. 분교다이레인보우교회와 유베츠메구미교회의 예배와 성경공부, 주일학교, 문화교실(한글교실, 가스펠 홀라 교실) 위에 성령님의 풍성한 임재와 은혜가 함께 하시도록.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 진리의 등대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2.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환자들과 의료진, 국가 지도자들,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많은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긍휼이 있기를, 팬더믹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고, 이러한 위기의 때에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3. 2주에 한 번씩 진행되고 있는 청년회가 청년부흥의 불씨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차이화 선교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위해서
4.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이시카와 미노루 상의 위암(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음으로 인해, 가족들과 함께 교회예배에 계속 출석중)이 치유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초 성경공부 중인 스미에 상과 마유코 상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5. 개척교회인 유베츠메구미교회가 좋은 건축설계회사와 연결되어 설계와 건축이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현지의 청년성도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카페교회선교로 함께 동역할 사역자가 허락되도록
6. 이시구로 마사루 신학생(삼반도리복음그리스도교회에 파견중)의 학업을 축복해주시고, 부인과 세 명의 자녀들이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모든 재정적 필요가 채워지도록. 봉사신학생으로 우리 교회에 1년간 파견(신학교 3년 중 2학년 때는 다른 교회에서 파견되어 봉사하게 됨)되어 온 쿠도 신학생 부부의 선교협력을 축복하시고 좋은 배움의 시간이 되도록.
7. 김주환-홍성아 선교사와 아들 유이(초등학교 3학년)가 늘 성령충만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현지주소) 〒069-0833 北海道江別市文京台14-26 文京台レインボー教会  
 (현지교회) 81-11-386-7750 (LG인터넷전화) 070-7579-0129  
 (이메일) givinglove77@gmail.com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990-014703-764 KPM김주환  
 · 첫 입금 시에만 KPM 세계선교위원회(042-622-7061~3)로 확인전화를 부탁드립니다.